한성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김]—*

컴퓨터공학부와 소속트랙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고 학생회 운김 소개를 끝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넘김]—*

컴퓨터 공학부는 현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학부입니다. 현 사회는 정보기술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식중심 사회입니다. 따라서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기본 지식과 핵심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응용 소프트웨어를 설계, 구현, 활용할 수 있는 개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컴퓨터 공학부는 가장 많은 학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한성대학교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IT공과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와 컴퓨터 관련 기술은 사회 전반에 걸쳐 필수적인 기술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한성대학교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페이지 넘김]—*

우리 컴퓨터공학부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4개의 트랙 별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모바일소프트웨어 트랙은 스마트폰 환경, 임베디드 시스템, IOT 시스템 등 현장 실무 능력을 갖춘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빅 데이터 트랙은 데이터베이스 이론 및 설계 기술의 습득 후 빅데이터를 실직적으로 수집/분석/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마이닝 기술 및 실제 프로젝트 수행 교과목 등을 통해 사회 수요에 맞는 실무 중심의 데이터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및 가상현실 트랙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 실감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 과학기술 전 분야에 활용 가능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가상현실 소프트웨어 개발능력을 갖춘 융합형 소프트웨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웹 공학 트랙은 웹 표준 프로토콜에 기반한 클라이언트-서버 구축 기술 학습 및 프론트 엔드와 백 엔드 기술을 통합한 FULL-STACK 엔지니어를 양성합니다.

*—[페이지 넘김]—*

다음은 트랙 별 추천트랙과 진로분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공학부 트랙은 단과대학 내의 트랙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외 트랙들과 결합하여 다양한 분야로 진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소프트웨어트랙의 추천트랙과 진로 분야입니다.

*—[몇 초 대기 후 페이지 넘김]—*

빅 데이터트랙의 추천트랙과 진로 분야입니다.

*—[몇 초 대기 후 페이지 넘김]—*

디지털 콘텐츠 및 가상현실 트랙의 추천트랙과 진로 분야입니다.

*—[몇 초 대기 후 페이지 넘김]—*

웹공학트랙의 추천트랙과 진로 분야입니다.

*—[몇 초 대기 후 페이지 넘김]—*

2024년 컴퓨터공학부 학생회 이름인 ‘운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번째 뜻은 ‘여럿이 한창 함께 일할 때에 우러나오는 힘’ 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곳의 따뜻한 기운’이라는 두번째 뜻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고 어울리는 따뜻한 학생회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운김 학생회는 3개의 단어로 한 해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먼저 ‘담김’ 입니다. 컴퓨터공학부 자체 월간지를 발간하고, 트랙 별 오픈채팅방 및 카톡방을 개설하여 컴퓨터공학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나 소식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안김’ 입니다. 컴퓨터공학부 내부 소모임 관리 및 창설과 컴퓨터공학부 내 자체 단합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컴퓨터공학부 학생들 위한 소모임을 만들고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여, 학생들이 언제나 편하게 안길 수 있는 학생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세번째는 ‘새김’ 입니다. 아이디어톤 행사를 개최하고 컴퓨터공학부 프로그래밍 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컴퓨터 공학부 학생들의 학술 행사와 대회를 통해 머릿속에는 지식을, 가슴속에는 추억을 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입니다.

*—[페이지 넘김]—*

컴퓨터공학부 학생회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개강/종강 파티, 학과 MT, 축제 등 여러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페이지 넘김]—*

한성대학교 신입생 여러분들의 입학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상 컴퓨터공학부 학생회 ‘운김’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